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2010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신년감사가족연합예배(1월 1일, 1부 · 9:00/2부 · 11:00) 2011년 제1차 성찬식(1월 2일, 주일 1~5부예배)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고전 1:18). 천재지변, 테러로 인한 아

픔과 공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가

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다(갈 6:14). 비록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마 16:24). 2011년에도 우리는 보

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특히 신년감사 가족연합예배에 꼭 나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며, 신년 첫 주일예배 시에 있을 2011년 제1차 성찬식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오늘 찬양예배, 제6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배나눔) 및 공동의의(동북 세례교회 참석)

신년 메시지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1~18)

많은 사람이 부른 꿈을 안고 신년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신년의 첫 메시지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요 3:16~17).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혜를 대표합니다. 그는 구약성경만을 믿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요 3:1).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받기를 원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요 3:2). 그는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였습니다. 죄인들과는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덕망 높은 교사이자 현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참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지혜는 영적 지혜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요 3:4~8).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요구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9)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 3:10).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영적인 지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가 오늘 듣는 설교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최선의 노력, 열의, 판단력이 여러분을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 2:14~15). 예수님과 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요 3:17~18).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너무 포장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는 구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요 19:39).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요 3:3).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이것은 거듭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아멘.

2011년 1월
교회
일정

1월 (토) 신년감사예배(오전 9시 · 11시)

2월 (주) 제1차 영안식(1~5부예배)

5월 (수) 장거당(수요2부예배 후)

23일 (주) 선교주일

THE TABLE OF BOAZ

*At mealtime Boaz said to her, "Come here, that you may eat of the bread
and dip your piece of bread in the vinegar." So she sat beside the reapers;
and he served her roasted grain,
and she ate and was satisfied and had some left.
(Ruth 2:14)*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2011. As many of you are aware, our church partakes in the Lord's Table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other month. Even though today's sermon will talk about the table of Boaz, it is Jesus Christ and His table that we will think about in relation to Boaz. Boaz was a man of great wealth from the family of Elimelech (Ruth 2:1). Elimelech's lineage can be traced back to Perez, a son of Judah (Ruth 4:18~22). Boaz is mentioned in Christ's genealogy (Mt. 1:5). He is an ancestor of Jesus Christ. He was a part of God's great salvation plan.

Boaz invited Ruth to his table. Ruth was a Moabite woman, a Gentile widow. She married a young man who had emigrated from Bethlehem to Moab (Ruth 1:2). When her husband, his father, and his brother died in less than ten years after arriving, she made the decision to stay with her mother-in-law and not return to her mother and father's home. Her mother-in-law had lost everything and was returning to her homeland of Judah. She told her mother-in-law, Naomi, who urged her to return to her mother,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urn back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Thus may the Lord do to me, and worse, if anything but death parts you and me" (Ruth 1:16~17). Unlike her sister-in-law, Orpah, she stayed with her mother-in-law. This lovely woman Ruth got Israel's God because of her decision. Soon after arriving in Bethlehem, Ruth went to work gleaning other's fields for food. In the providence of God, she happened to glean on a portion of a field that belonged to Boaz (Ruth 2:3). When Boaz found out about her he asked her not to go into other fields but to glean from his only. He promised to protect and provide for her (Ruth 2:9). At mealtime that day he said to her, "Come here, that you may eat of the bread and dip your piece of bread in the vinegar" (Ruth 2:14). Boaz invited a poor woman to a simple meal of bread and wine.

Jesus now invites you to His table. Over one thousand years before, His ancestor, Boaz made a simple meal for a person in need, and soon after married that person. Jesus came to this earth for the lost. He came to bring peace,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Jn. 14:27).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He said,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Jn. 15:13~14). Naomi brought a Moabite woman back home and that simple act became part of saving the whole world. Isn't God's ministry great? Ruth and Naomi were struggling for survival, and God prepared for them to prosper and save this world. Naomi thought God was against her. She proclaimed, "for the hand of the Lord has gone forth against me" (Ruth 1:13). She told her neighbors, "I went out full, but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Why do you call me Naomi, since the Lord has witnessed against me and the Almighty has afflicted me?" (Ruth 1:21). Naomi was wrong! God loved her. Her grandson, Obed, the son born to Ruth and Boaz became the grandfather of David and a relative of Jesus Christ. Jesus told His disciples when He had broken and given them some bread, and given thanks at His Table,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Lk. 22:19).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k. 22:20). Jesus invites you today to come to His Table.

My dear friends, God's work is always wonderful! Ruth and Boaz sat at a small table with bread and wine, not knowing that a thousand years later one of their offspring would become the Lord and institute the Lord's Table for every believer to partake in. Please come to the Lord's Table today and take the bread and cup in remembrance of Jesus Christ. Amen. 

보아스의 식탁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 2:14)



김성관 목사

오 늘은 2011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홀수 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보아스의 식탁에 관한 설교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성찬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도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큰 부자였습니다(룻 2:1). 엘리멜렉의 혈통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룻 4:18~22).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습니다(마 1:5).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초대

보아스는 롯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온 젊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룻 1:2).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과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유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다그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룻 1:16~17). 그녀의 동생인 오르바와 달리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여인 롯은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곧바로 롯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들판에서 이삭을 주워야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는 보아스 소유의 들판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룻 2:3). 롯에 대해서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들판으로 가지 말고 오직 자신의 밭에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호와 식량 제공을 약속했습니다(룻 2:9). 어느 날 식사시간에 그는 그녀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룻 2:14)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조출한 빵과 음료가 있는 식사에 가난한 여인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대략 1천 년 전에 그의 선조 보아스는 한 사람을 위한 조출한 식사를 준비했고 그 후 보아스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임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행동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롯과 나오미는 살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룻 1:13)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룻 1:21)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손자이자 롯과 보아스의 아들인 오벧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출한 식사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놀랍습니다! 롯과 보아스는 빵과 음료가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1천 년 후에 그들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주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모든 성도를 위해 마련된 성만찬이 제정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식탁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69

천사가 하늘로부터(누가복음)

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 22:43). “천사가 하늘로부터”라는 구절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구절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 ‘천사’에 대한 언급 자체는 마태복음(마 26:53)이나 요한복음(요 12:29)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천사가 하늘로부터’라는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락을 누가가 쓴 것이 아니라, 2-3세기에 누가복음의 사본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누가복음과 아울러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다.

누가는 ‘천사’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다. 특히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성탄 관련 기사에서 계속 볼 수 있다(눅 1-2장).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천사였다. 다음으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도 있다. “뜻이 소돔에서 나기만 달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니라”(눅 17:29).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11). 그리고 마지막 구문인 “힘을 더하리라”도 누가가 자주 사용하던 기술방법이었다.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행 9:19, 22).

예수님이 셋새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왔다. 이는 사신을 누가는 기록하였다. “천사가 하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을 때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기록하였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자주 나온다. 특히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우는 천사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자주 보게 된다(행 12:5, 22:17, 26:7). 누가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는데 마태복음의 15회, 마가복음 10회에 비해 누가복음에는 19회, 사도행전에는 16회 이상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누가복음 22:43-44 말씀은 누가의 기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심자가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몹시 지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심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매번 넓은 길로 나아가 버려 하는가? 나의 지체, 교만인 왜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 성탄의 현상인 말기유로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이 지꾸만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심자가 보혈뿐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를 도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다. “어찌하여 자느나 시첩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자가 복음

전도자
(사도행전 21:8)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우리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것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곡해하기도 한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은 여전히 핍박자들로 넘쳐났지만, 아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로 모여 들었고, 사도들은 모든 일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행 6:1-2).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행 6:3-5).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에 따라 주님의 종들을 세웠다(엡 4:10-11).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두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그런데 이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확장, 세상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제다.

● **빌립** 빌립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다른 집사들과 함께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였고 교회는 계속 부흥했다. 그러나 핍박자들에 의해서 스페

만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흩어졌다(행 7:55-56, 59-60, 8:2).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빌립을 전도자로 사용하셨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경배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된 터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5-8). 빌립의 초점은 오직 복음 전도였다(행 8:12).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한창 부흥을 일구던 사마리아를 떠날 수 있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행 8:26-28, 35-38, 40).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빌립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행 8:14). 빌립은 복음전도자였다.

● **오늘의 교회의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명을 오늘의 교회는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오늘의 교회의 전도자는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영혼이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6-38). 우리가 나아갈 곳에는 핍박자들로 넘쳐 나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눅 10:1-3). 개인적인 기량이 탁월하고 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체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순진한 믿음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눅 10:21-22). 많은 선지자와 일꾼이 간절히 원하던 복음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눅 10:23-24).

사도행전 21장 8절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흩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이때 빌립은 변함없이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변한다. 그러나 빌립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초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초점은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는 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영생을 얻은 자였고, 영생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세상을 보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큰 기쁨뿐이다. “담대히 심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땅 끝까지 / 복음칼럼

주 예수의 권능 앞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열침에서 오신 88세 한 노인은 열침기도를 하고 우리와 찬양을 하는 동안 간절함으로 눈에 눈물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이젠 팀이 구역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곳에도 우리는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서 도착한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젊은이가 자신의 신당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는 목수리 부리와 여우 머리, 뱀 모양의 장식을 수도 없이 한 이상한 무당 옷을 입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한 마디씩 대꾸를 하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했다. 그가 뛰라고 했을지 짐작은 되지만 그도 주 예수의 권능 앞에서 변화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박광홍(집사, 14교구)

내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동네 입구에서 한 쪽 두개골이 깨져 머리가 한 쪽으로 기울어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열침기도까지 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자기 주소와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백태가 끼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 다리에 화상을 입고 걸지도 못하는 여인. 피부병이 있어 옷을 안 입은 그 피부! 보기만 해도 안쓰러움이 앞섰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두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귓전에 맴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치료하려고 애는 것, 내 교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심도 감사하다. 이곳에 복음 들는 자마다 전하는 자가 되어 교회가 세워질 거라 믿는다.

김해연(권사, 21교구)

자격 없는 자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1일(화) ~ 12월 29일(수)	15교구 4팀	서전원
12월 23일(목) ~ 12월 31일(금)	22교구 3팀	김중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4일(화) ~ 12월 23일(목)	18교구 4팀	박미연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각자의 상황의 어려움들로 선교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은혜로 도착한 선교지, 영산 외로 복음 전도에 대한 방해가 없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들관을 달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며 주님이 만날 영혼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였다. 전기기도, 전화도 없는 오지. 찾아오는 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보며 오히려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런 믿을 없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다. 전해진 복음의 씨앗,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 맺어 생명의나무가 될 것을 소망한다. 또한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김요한(집사, 청년1부)

복음 칼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 같은 죄인까지 구속하여 주신 것 은총이며 기적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에게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2011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열과 진리로 예배하는 권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눅 22:43). 권사회가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히 12:2) 한 영혼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권사회가 되길 소원합니다(눅 22:44).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권사들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24시간 연속 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현영교회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그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1,228명(시무 823명, 은퇴 405명)의 권사들이 집회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준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서 순종하는 종들로 쓰임 받는 권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권사들을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으니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기도원에서의 기도처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주

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권사회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전체 월례회를 통해 회가와 거듭남의 역사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기도원의 예배처소의 청소와 식당 봉사 등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필요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현의 천국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한금과 선교를 위한 선교한금을 모든 권사들의 기도와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빌 2:2)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연약하고 부족한 권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는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아멘.

김영숙(권사, 권사회장)

주님께 보내는 편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이제껏 만없이 부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자녀답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 천동법거승이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단편시켜 주시고 온편시켜 주시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믿을 리 만무한 엄청난 죄인인데 독역자들

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사역을 통해, 심지어 질병을 통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시심으로 저에게 그 희망의 빛줄기를 어락

에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올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대학부 팀장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맡기시고, 올려가듯 매주 주일5 부예배의 밴앨범안대로 섬겨주던 저에게 성대결절이라는 질병을 '여력'하신 주님, 되돌아볼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여력'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2010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의 결례기를 만 안도 남김없이 베풀어주시고, 끔찍이도 보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저의 죄악들을 제게 보여 주셨지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몰랐던 저에게, 항상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그것은 정말이

지 너무나도 잔인한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저에게, 조금의 희망도 남아 있지 않은 저에게 당시는 말씀에 주셨

습니다. "그러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 말이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감격스러웠기에 다른 영혼들을 저버릴 수

가 없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성대결절이라는 질병을 통해 매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내려놓게 하신 주님. 처음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

신을 찬양하겠는데 도대체 왜 찬양을 못하게 하시는 거요? 왜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찬양하

고 싶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하지만 천, 찬양에 대해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목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

니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전심을 다해 영모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정지었던 찬

양의 범위를 깨뜨려 주시며 말씀에 주셨습니다. "은혜야, 낙심하지 마렴. 학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너의 삶과 순간순간을 통해

상으로 내게 찬양할 수 있다. 기대하라!" 부끄러웠습니다. 꼭 찬양대에서든 목소리 내어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제 자신이

요. 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2011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드레스 201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 나의 삶 가운데 부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놀라웠기에, 2011년에 과연 이것

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지만 2010년의 여력하신 은혜들이 참 변덕없던 만

큼 2011년, 새해에 부여주신 은혜와 메시지는 더욱 반박일 거라 믿습니다! 2012년이 다가왔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 주님하심을 믿기에.

이렇게 한 해 내가 섬김섬김 다하고요, 당신이 오시 그 날도 그렇게지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스피럴 필치는 당신의 시나리오를 2011년에도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주 (경원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 해 동안 부족한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청지기로서 봉사해 하셨습니다. 맡은 저에게 구할 것은 총성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는 병마와 싸우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여러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회복되고 치유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내려놓았던 주의 일을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니 제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지고 멍에를 메고 짐을 저 주시기 때문에 자유함과 더불어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분명히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거하시실 채소로 지어져 기도하 주시길 주님께 맡겨 주십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 죄인은 때로는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슬프게 해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교사와 구역장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으니 더 없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연약한 육체로 오로지 한 병마와 싸우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인기에 늘 미소를 띄우며 남편과 구역예배와 교구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더니 주님의 은사로 남편분이 협곡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천주 집사님의 권유로 주님께 인도되었는데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져 개종까지 받아 우리 구역 식구들은 더 없이 기뻐합니다.

저의 구역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구역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한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죄인 된 저들이 아직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태하여 주셔서 몸 된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종 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명희 (집사, 10교구)

주님을 연출자 나는 배우

교구영성훈련이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순서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중 '발에 감추인 보배'를 성경으로 하였는데, 저는 농부의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종함으로 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일이라 부담이 되었고, 시간이 다가들수록 격정이 되었습니다. 연출 때 상대 역할을 대신 해 주던 남편이 연기를 잘 하지 못해도 더 재미있을 수가 있고, 말씀의 메시지만 잘 전달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연극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게 주셨는지 적절 대신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품을 준비하며,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눌 교구식구들을 생각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주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많은 역할을 주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중에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시는 기도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의 모든 삶의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무슨 역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감독이 부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듯이 저도 우리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대인 세상을 제 진정한 목사님과 사랑했음이 헛됨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출자이신 주님이 주님의 무대에 부르지 않으면서, 세우지 않으면서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기도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의 모든 삶의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무슨 역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감독이 부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듯이 저도 우리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대인 세상을 제 진정한 목사님과 사랑했음이 헛됨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출자이신 주님이 주님의 무대에 부르지 않으면서, 세우지 않으면서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기도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의 모든 삶의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무슨 역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감독이 부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듯이 저도 우리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대인 세상을 제 진정한 목사님과 사랑했음이 헛됨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출자이신 주님이 주님의 무대에 부르지 않으면서, 세우지 않으면서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문경숙 (권사, 16교구)

2011년 예배가원 찬송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2011년부터 예배가원 찬송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로 바뀐다. 이 찬송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제 19:16)는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주이시므로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드려 찬양해야 한다(1절), 그리고 온 만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2절, 살전 1:3).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3절, 사 64:8).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4절). 결국 찬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고백이 된다. 주일에배 시에만 부르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가사를 되새긴 후, 예배 시 부른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될 것이다. 행진곡 같이 힘차게 부르는 찬송임을 유념하되, 특히 후렴구는 각 파트별로 주고받는 형식이니 만큼 파트별로 소리내어 하도록 나를 이룬다면 찬송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2011년 오직 주 예수 이름 높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사랑의 목사님!

술하게 들어온 복음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믿새나는 모습에 주님의 질타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바라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며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왜 그토록 강박하게 율법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에 마음이 몹시도 아프고 좌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종교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토록 애타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갈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동하는 마음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간구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셔서 회개의 아픔이,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천하신 주님은 역설적이시기에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멸시한 자들을 들어 복음 사역에 도구로 쓰신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믿을 없는 강박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대사가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한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거라서 광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수가성 여인을 귀하게 하고 하겠습니까! 임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식들에 민감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복음 증거에는 나태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칭찬하곤 하곤 매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어느 때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통치하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준계로 되시옵고 육신의 연합함을 하나님의 생령 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모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실지 기대하며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힘 있게 증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구하며.

2010년 12월 20일 이선자 올림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가장 큰 변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니, 이 모든 일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조차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찮은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때에 잘 불러 주셨고, 아무 말 없이 잘 받아 주셨습니다. 아마 계속 잘 감싸 안아 주셨을 텐데 제가 인지하지 못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서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보듬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온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몇 번이고 주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갈등 속에 있고 내면적인 면까지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생각이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엔 힘들 때에만 예수님을 찾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쁠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어 주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분명 그 일에는 주님이 주신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에게 너무 큰 선물이라 복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던 제가 이제 긍정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종이상제처럼 많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매사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김지현(성도, 새가족부양육부 수료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450	박지현	중등부	2	박지혜
1451	정명애	양육반	21	이복순B
1452	오영민	초등부	1	김근영
1453	윤옥희	양육반	11	이태식
1454	이훈순	양육반	21	황윤호
1455	최정원	양육반	17	전은희
1456	박길미	양육반	13	전옥순B
1457	이욱진	초등부	16	이은택
1458	배종우	양육반	16	김영희
1459	김예지	양육반	2	홍철순
1460	박주영	중등부	24	조하진
1461	최정숙	양육반	22	오은경
1462	김정복	양육반	4	김동희
1463	이재성	양육반	14	김현아
1464	최귀국	소망부	2	정경희B
1465	임효호	양육반	24	이영근
1466	심준규	중등부	13	박익민
1467	김진영	대취부	18	최세진
1468	임지영	양육반	3	김진영
1469	이영택	양육반	17	기하영
1470	신익환	중등부	13	김동희
1471	이지홍	중등부	3	윤세현
1472	정지연	양육반	22	
1473	김한결	영아부	22	
1474	문유현	중등부	1	강혜진
1475	이광익	양육반	24	유정숙
1476	이하진	고등부	11	조아리
1477	임현지	중등부	17	양해수
1478	김수권	중등부	1	김채은
1479	송상순	양육반	4	이지현
1480	신문순		1	

증명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